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올해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 매출 100억 달러 돌파 예상

물류정책 · 산업동향

1. LA/LB항, 청정기술 채택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 대폭 감축
2. 일본 국토교통성, 디지털 물류 인재 육성에 주목
3. 국내 모빌리티 업체 42air, 미국 해상 드론배송 시장 진출
4. 코로나19로 인한 선원교대 어려움 가중, 중고선 매매 난관으로 대두

공지사항

- 「2020년 해외 한상물류기업 사업설명회 - 몽골편」

일시: 2020. 9. 24(목) ~ 2020. 10. 8(목)

진행방식: 유튜브(Youtube) 영상업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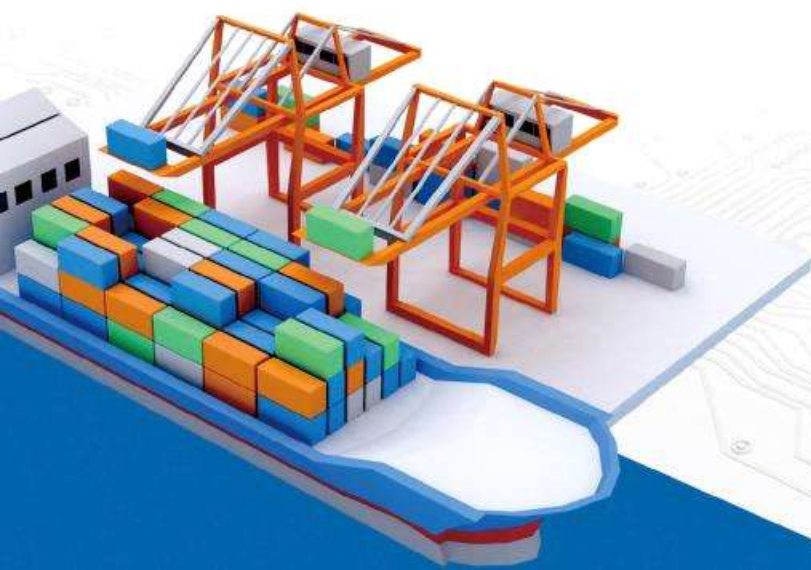
* 설명회 영상 링크: <https://youtu.be/iykL-HVoigw>

※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 참조

명사 스피치

“선박 조세리스제도가 국내에 도입돼 세제혜택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국내 선박금융시장에서 다양한 신규 투자자 유치를 통해 선박금융시장의 유동성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진흥공사 조규열 본부장
(2020. 10. 8. /한국해운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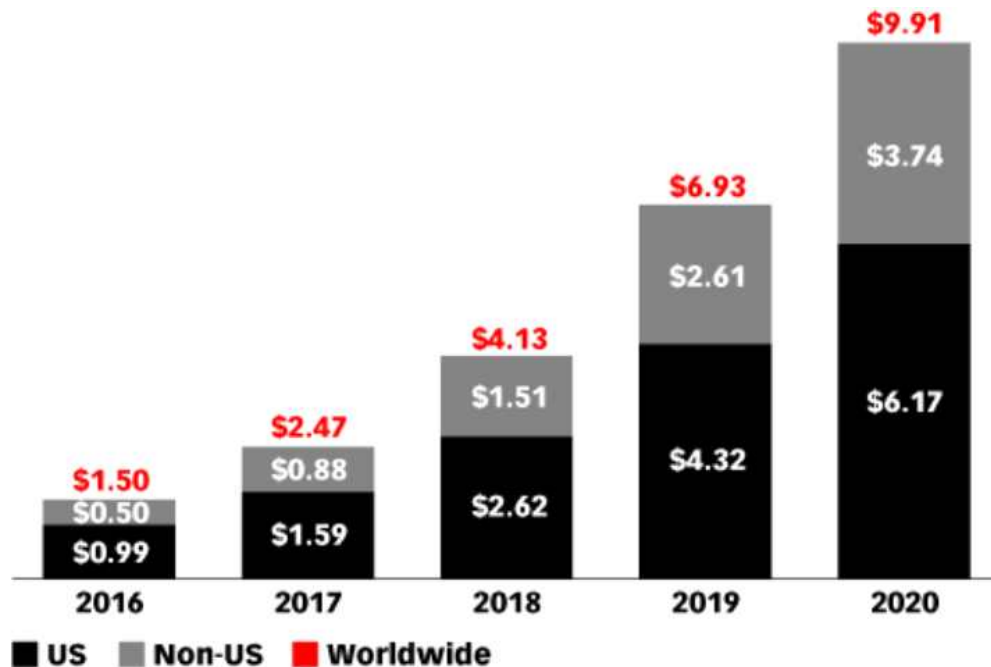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올해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 매출 100억 달러 돌파 예상

2016~2020년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 매출액(미국과 기타지역)

(단위 : 십 억 달러)



자료: eMarketer(2020.9.21)

-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이 진행하는 올해의 프라임데이(The Prime Day) 행사가 이달 말에 개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약 10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이중 약 61.7억 달러는 미국 소비자들에 의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아마존이 지난 몇 년간 프라임데이 행사를 통해 달성한 매출액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대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2019년에는 총 69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6~2018년 기간 각각 15억 달러(2016년), 24억 7천만 달러(2017년), 41억 3천만 달러(2018년)를 달성함

참고자료 : www.prowell-tech.com(검색일: 2020.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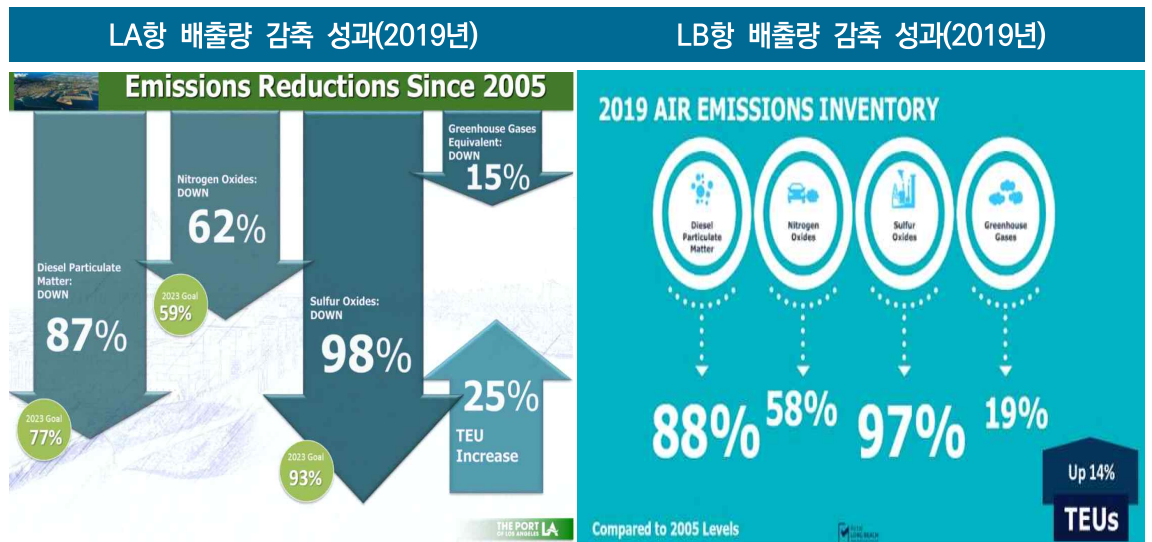
이기열 부연구위원

051-797-4670, kylee@kmi.re.kr

물류정책·산업동향

LA/LB항, 청정기술 채택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 대폭 감축

- 2019년 대기오염 배출 인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LA항과 파트너는 2018년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5~7% 줄임
 - 2019년 배출량을 분석한 보고서에서는 화물량은 연간 1% 감소했으나 항만은 배출량을 성공적으로 감축함
 - 연간 인벤토리는 선박, 트럭, 기관차, 항만선박 및 화물 취급 장비 등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원인으로부터 오염을 줄이기 위한 항만 전략의 연도별 변화와 장기적인 진척도를 측정함
 - 2019년 한해 동안 건강위험 및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지상 오염 물질 감축 기준(2005년) 재정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함
 - LA항 기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62%, 황산화물(SOx)과 디젤미세먼지(DPM: Diesel Particulate Matter)는 2005년 대비 각각 98% 및 87% 감소함
 - LB항 기준 2019년 배출 인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NOx 58%, SOx 97%, DPM 88% 감소했음
 - LA항은 이산화탄소등가(CO2e: Carbon Dioxide Equivalents)로 보고된 GHG는 2005년 대비 10,000TEU당 32% 감소했고, SOx는 2014년 대비 컨테이너당 98% 감소했으며, 컨테이너 물동량을 고려하지 않으면 LA항은 2005년 이후로 GHG 배출량이 15% 줄어듦



자료 : <https://www.facebook.com/PortofLA/>;
<https://www.offshore-energy.biz/port-of-long-beach-continues-reducing-harmful-emissions/>

- 항만은 대형선 입항으로 인한 총선박 기항 수를 줄이고, 청정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항만 기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핵심 요소임
 - LA항은 2019년에 987 척의 컨테이너선이 930만 TEU 이상을 항만에서 양하역했는데, 이는 2005년 1,497 척이 750만 TEU를 처리한 것과 비교됨
 - LA항의 2019년 수치는 기준연도 이후 TEU가 25% 증가, 컨테이너선 기항은 33% 감소, 기항 당 평균 TEU 수는 87% 증가를 보여줌
 - LB항은 컨테이너 화물이 2005년 이후 14%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기술 도입으로 배출량은 감소함



- 제로 배출 목표의 일부로 청정 기술을 채택하는 데 어려움이 남아 있지만 캘리포니아 항만에서 배출량이 크게 감소했음
 - LB항의 전무이사인 Mario Cordero는 “현재 우리 항만 전체에 걸쳐 1억 5천만 달러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고 2030년까지 배기가스 제로의 화물 취급 장비를, 2035년까지 모든 배기가스 제로 트럭을 만드는 청정대기행동계획(CAAP:clean air action plan)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라고 말함
 - 특히 지난달 항만 측이 공동 개발한 고출력 전기트럭 충전 솔루션이 엔지니어링 상을 수상했음
 - 롱비치항만위원회(Long Beach Harbor Commission)의 Frank Colonna 회장은 “우리는 대부분의 배출 목표를 달성하고 있지만 기존 기술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청정 장비를 개발하고 배치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는 이유다.”라고 언급함
 - 캘리포니아 항만은 향후 청정장비 배치의 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고도화 프로그램 및 기타 보조금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최초의 제로 배출 장비를 개발하고 시연하는 데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음
 - 해당 항만은 현재 60개의 서로 다른 무공해 장비를 테스트할 시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고, 현재 항만의 화물 취급 선단의 약 15%는 이미 배출 가스를 제거하는 데 성공함
- 한편 2020년 데이터는 또한 항만에서 제로에 가까운 또는 제로 배출장비에 대한 광범위한 테스트의 이점과 캘리포니아 육상전원공급(AMP) 규정의 영향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1월1일부로 컨테이너선, 냉동선 및 크루즈선 선단이 안벽 접안 시 AMP를 사용해야 하는 조건을 입항 선단의 80% 수준으로 상향함
 - 크루즈선은 2019년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의 8%를 차지했지만 바이러스 감염 위험 증가로 인한 크루즈 산업의 장기적인 가동 중단도 2020년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참고자료 : www.porttechnology.org(검색일: 2020.10.2.), www.greenport.com(검색일: 2020.10.2.)

이연경 연구위원

051-797-4682, ekleee@kmi.re.kr



일본 국토교통성, 디지털 물류 인재 육성에 주목

- 지난 9월 17일 일본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업성은 차기 종합물류시책대강의 검토를 위해 제3차 전문가 회의를 개최함
 - 카오, 히타치물류 등 관련 기업 전문가를 중심으로 물류 산업의 과학적 재구축을 위한 디지털 물류 인재 육성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함
 - 경제동우회에서는 현업의 사전단계인 대학교육에서부터 디지털 물류 인재 육성을 위해 산·학·정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성을 제기함
 - 히타치물류에서는 물류 기업에서 인적 자원·물류 활동이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사에서는 현장 경험이 있는 직원을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DT, Digital Transformation) 그룹으로 지정하여 교육 강화 실시 등 타사 및 그룹 내 협력을 통해 인재육성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힘
 - 전문가들은 물류 인재는 Operation Research 인재와 현장 작업자를 구분하여 육성 전략을 구상해야 하며, 다양한 분야의 인재가 종합적으로 물류업에 종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이외 디지털 플랫폼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과 표준화 지원 필요성을 제기함
 - 카오는 디지털 플랫폼의 실현을 위해 다수의 기업 참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디지털화 투자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주장함
 - 히타치물류는 물류의 자동화·기계화 진전에 따른 하역 기기·상자 사이즈 등의 표준화와 고도의 디지털 시스템에 대응한 규제 검토가 필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보급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 필요성을 제기함

■ 참고자료 : www.secure.marinavi.com(검색일: 2020.10.6)

최나영환 전문연구원

051-797-4770, chnayoung@kmi.re.kr

국내 모빌리티 업체 42air, 미국 해상 드론배송 시장 진출

- 현대그룹이 투자한 우리나라 모빌리티 전문업체 포티투닷(42dot)의 자회사 포티투에어(42air)가 미국에서 해상 드론 배송 시험을 시작함
 - 자율주행(aTaaS) 모빌리티 스타트업 '포티투닷'은 자회사 포티투에어를 통해 북미 해상 운송 기업 '노턴 릴리'(Norton Lilly)와 해상 드론배송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음
 - 포티투에어는 드론 기반 배송 시스템을 개발하는 포티투닷의 자회사로 현대차 그룹이 170억원을 전략 투자해 모빌리티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드론으로 움직이는 대상에 소포, 문서 등을 배송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 포티투에어와 노턴릴리는 배송을 요청하는 선박에 드론으로 최대 10파운드(약 4.5kg) 무게의 소포, 문서 등을 선상의 정확한 위치에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함
 - 두 기업은 2020년 9월 5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만에서 일본 해운사 NYK 선박 승무원들에게 물건을 배송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해상 드론의 안전성과 정밀성을 검증함
 - 해당 시험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데이터 수집에 주력해 서비스 지역을 오클랜드 항만까지 빠르게 확대해나갈 방침임
- 드론을 활용한 해상배송은 기존 보트, 헬기 방식 등을 활용한 '해안-선박(Shore-to Ship)' 운송과 비교했을 때 시간,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으로 판단됨
 - 포티투에어는 해상 드론배송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성과 정밀 제어를 위해 정밀 위치인식, 기류 예측, 3D 드론 지도 등의 기술을 활용함
 - 이는 해상에서의 선박 위치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기상, 기류 등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 해상 드론배송은 수요 응답형(in demand) 호출 운행 서비스가 가능하며, 3차원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교통 혼잡을 유발하지 않아 해양 오염을 저감시키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됨
- 포티투에어는 상대적으로 드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미국에서 사업성을 검증한 후, 향후 한국서도 해상 드론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밝힘
 - 포티투에어는 현재의 해상 드론배송 알고리즘을 정교하게 발전시켜 향후 도심형 모빌리티 통합 플랫폼 유모스(UMOS·Urban Mobility Operating System)로 확장하여 다른 배송 모빌리티와 연계할 계획을 밝히며 해상 드론배송의 선도적 역할을 자처함
 - 도심형 모빌리티 통합플랫폼 유모스는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로봇 등 미래 이동수단을 모두 다룰 예정이며, 사용자가 유모스를 통해 차량호출 및 공유, 스마트 물류, 전자상거래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축될 예정임

■ 참고자료 : www.tekdeeps.com(검색일: 2020.10.3)

류희영 연구원

051-797-4634, hyryu@kmi.re.kr

코로나19로 인한 선원교대 어려움 가중, 중고선 매매 난관으로 대두

- 중고선 매매가 활발해지면서 선박 인도 시 필요한 선원 확보가 과제로 대두하고 있음
 - 중고선 매매 시 신규 선주로 선박이 인도되면서 일반적으로 선원들이 한꺼번에 교대됨
 - 코로나19 확산으로 선원 이동에 제한이 발생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선원교대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꺼번에 20여 명의 교대가 필요한 중고선 매매 시 선원교대에 어려움이 가중됨
- 2020년 하반기 운임상승을 배경으로 중고선 매매가 활기를 띄고 있으며, 특히 선령 13~15년의 건화물 운반선 거래가 다수 성사됨
 - 중고선 매매 시에 필요한 선원확보는 선원 입국 제한, 자가격리 의무화, 운항 항공편 부족 등으로 쉽지 않은 실정임
 - 일례로 양쪽 선원 모두 필리핀인이라면 필리핀에 기항해 인도하면 되지만, 승·하선 중 하나가 다국적 선원으로 구성될 경우 각국의 입국 제한 등을 고려해야 함
 - 선원교대 항만 선정이 이슈로 부상하면서 매수자가 계약서에 '매도자는 선원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는 교대가능 항만을 제시할 것' 등 특별 조항을 추가하고 있음
- 세계 해운업계는 주요국 항만에 '선원교대특구'를 설치해줄 것을 관계국 정부에 요청하고 있음
 - 코로나19의 확산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각국의 입국·이동 제한 등으로 선원교대가 어려운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음
 - 선원교대 집중 실시 항만을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국제해운회의소(ICS: 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와 국제운수노련(ITF: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이 공동 설치한 전담 조직 등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
- 선원교대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 지속되면 안전운항 현장을 책임지는 선원들의 피로도가 커져 글로벌 공급사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 선원교대특구 설치 시 물류 활동을 지속 가능케 하는 원활한 선원교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승·하선을 희망하는 선원의 차질 없는 이동이 가능함
 -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중단시키지 않기 위해 선원교대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시급함

■ 참고자료 : www.secure.marinavi.com(검색일: 2020.9.28)

안영균 전문연구원

051-797-4643, ahnyg@kmi.re.kr



공지사항

「2020년 해외 한상물류기업 사업설명회 - 몽골편」

□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020년 해외 한상 물류기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0. 9. 24(목) ~ 2020. 10. 8(목)
- 개최 목적 : 성공적으로 진출한 한상 물류기업을 초청하여 국제물류사업 촉진을 위한 국제물류 협력 네트워크 강화 도모를 목적으로, 2020년도에는 **몽골에 진출한 한상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 진행 방식 : 유튜브(Youtube) 채널을 통한 **온라인 진행**
 - 「2020년 해외 한상물류기업 사업설명회 - 몽골편」 영상은 유튜브(Youtube)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음
 - * 설명회 영상 링크 <https://youtu.be/iykL-HVoigw>

〈 프로그램 〉

구분	내용
개회인사	KMI 해운·물류연구 김태일 본부장
발표 1	한-몽 국제물류 협력 방안 (순천향대학교 김홍진 교수)
발표 2	몽골진출 화주기업 의료기 진출사례 (비겐의료기 몽골법인 김상미 법인장)
발표 3	몽골진출 물류기업 진출사례-물류루트 및 미래사업 (서중물류 주지환)
발표 4	몽골 자원물류 해외진출사례 (청조해운항공 강현호 대표이사)
발표 5	몽골진출 물류 진출 및 물류환경 (KYL Logistics 김명진 대표이사)

- 사업설명회 발표자료(PPT)는 아래의 담당자에게 요청 시 공유 가능함
- 기타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051-797-4774, 051-797-4913)로 문의 바람